



<b>코스피</b> 2210.89 (+14.80)	<b>코스닥</b> 745.33 (+6.67)
<b>금리 (미국 3년)</b> 1.80 (+0.03)	<b>환율 (원/달러)</b> 1125.80 (-2.90) (18일)

**[산업]**  
SK텔레콤  
MWC 2019 참가  
슈퍼노바 공개  
05

# 택배 단가 끝없는 추락에 물류업계, 가격인상 추진

끝없이 추락하던 택배 가격 하락세를 막기 위해 CJ대한통운이 배수진을 쳤다.

1990년대 초반 평균 5000원대에서 줄곧 떨어지기만 해 최근까지 20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간 택배 단가를 업계 1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택배사의 단가인상 시도는 최초다.

국내 택배 평균 단가는 물량 확보를 위한 업체간 경쟁 격화와 택배터미널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끊임없이 하락해 일부에선 박스당 1000원대까지 형성될 정도로 떨어졌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증가보다 단가 하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택배사 수익성 악화 뿐만 아니라 택배 종사자 처우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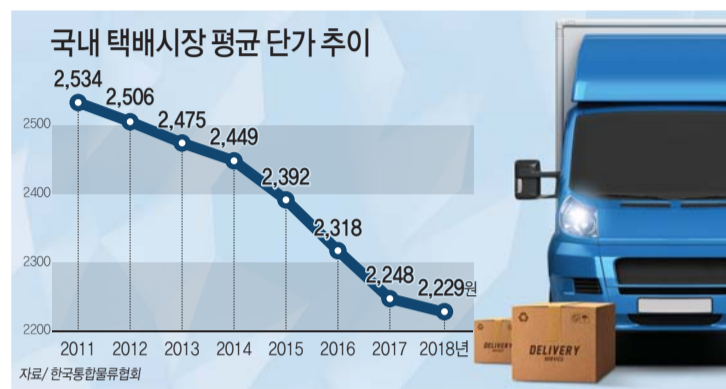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도 택배기사를 포함한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 보장과 처우 개선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내세운 바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1월 말 당시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마련,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 택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생활물가가 오르고 있는 와중에 택배단가까지 인상될 경우 소비자 부담은 다소 늘어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체제확인 시스템(ITS)을 통해 실제 박스 크기에 맞는 단가로 계약하며 '택배 단가 제값 받기'에 들어간 CJ대한통운은 오는 3월부터 고객사와 택배 운임 정상화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수량, 무게, 크기에 따라 새롭게 운임을 협의하며 인상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이 제시할 인상안



## 박스당 5000원→1600원까지 업체간 경쟁으로 지속 하락

## CJ대한통운, 업계최초 시도 3월부터 고객사와 운임협의

## 박스당 평균 100원 정도 ↑ 경쟁사들도 협상 가세할 듯

이 받아들여질 경우 박스당 택배 단가는 평균 1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하반기 택배시장 점유율이 47~48% 가량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2위인 한진택배도 지난해부터 계약이 끝난 고객(화주)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물량이나 크기 등이 최초 계약시점과 차이가 클 경우 단가 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택배 부문에서 적자가 난 것으로 알려진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태세다.

택배사들이 택배 단가 인상을 놓고 화주들과 협상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2년 당시 박스당 평균 5000원대였던 택배 단가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중소형 택배사 다수 출현, 단가 인하 출혈 경쟁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실제 2012년 당시 평균 2506원이던 택배 단가(박스당)는 2449원(2014년)→2318원(2016년)→2229원(2018년) 등으로 하락했

다. 게다가 화주와 물량을 잡기 위한 업체간 출혈 경쟁으로 최저단가는 박스당 1600원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주들이 매년 최저운임을 제시하는 택배사를 선정하는 것이 관행이고, 이때문에 택배사들이 단가를 낮추며 제살 깎기기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다보니 택배 운임이 한번도 오르지 않고 매년 하락하기만 했다"면서 "이 결과 택배사들의 매출은 높아졌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떨어지고, 택배를 각 가정에 배송하는 택배기사들도 박스당 받는 수익이 덩달아 떨어져 이전 한계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CJ대한통운이 첫 인상 시도에 나선 것은 더 이상 단가를 낮출 수만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도 택배사들의 단가 인상이 3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미래에셋대우류제현 연구원은 앞서 "택배 단가 인상이 현실화되면 연평균 5% 정도의 단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CJ대한통운의 경우 연간 13억 박스 이상의 물량 처리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매출액은 1300억원, 영업이익은 600억원 가까이 늘어 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선 지난해 26억개에 달했던 택배 물동량은 올해 28억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LG전자, 내달 15일 주주총회

권영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LG전자가 다음 달 15일 서울 트윈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도현 사장 재선임과 LG 권영수 부회장(사진)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대 이상구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하는 건도 포

함했다.

GE 플라 스틱스아시아 전 김대형 CFO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고,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백용호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새로 선임하는 내용도 있다.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90억원으로 승인한다.

재무제표 승인 건에서는 1주당 배당금을 보통주 750원, 우선주 800원으로 결의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배당금을 80% 안팎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도록 법률이 바뀌에 따라 주권 종류를 삭제하고 전자등록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회의에 통신수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다.

/김재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5·18 폼페이 헌법정신 부정하는 것”

## 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망언'으로 도마에 오른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김순례 의원·이종명을 직접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 3명의 의원들은 지난 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5·18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고 서슴없이 거론해 여론의 눈총을 샀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 5·18민주화운동특별

법을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다"며 "(또) 역대 모든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납매됐다'는 등 주장을 하며 폼페이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

을 보장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아직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5·18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는 정치권 일각의 행태를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다"며 "(대한민국은)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 파운드리 3위부터 스타트업까지 매물로

# 반도체업계 대규모 재편 조짐

## 美 GF, 몸집 줄이기 나서 中SMIC·삼성전자 등 균침

반도체 업계가 재편 작업이 한창이다. 소규모 스타트업 수집은 물론이고, 대형 기업간 인수·합병도 시작될 조짐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글로벌파운드리(GF)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나노 공정을 포기하고 인력을 5%나 감축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싱가포르 200mm 팹을 매각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선 까닭이다.

GF는 전세계 파운드리 업계 3위인 업체다. 시장 점유율은 8% 이상으로, 미국과 독일에 공장을 두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영기업 ATIC가 지분 90%를 보유 중이다.

유력한 인수 후보는 중국 SMIC다.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이미 5년여전 개발한 14nm(나노미터)를 올 상반기에서야 양산을 시도하는 수준이지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에 달한다.

삼성전자도 인수전에 뛰어들 조짐이 보인다. 지난해 현금보유

액을 104조21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실탄'이 증분해진 상황,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UAE를 방문한 이유도 GF 인수를 타진하기 위해 서리는 추측이 나왔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5%로 추정된다.

인수전 결과는 파운드리 업계 판도를 송두리째 뒤엎을 전망이다. SMIC가 인수하면 기술력 확보와 함께 시장 점유율까지도 크게 올릴 수 있고, 중국 반도체 굴기에도 다시 힘이 불게된다. 삼성전자가 인수에 성공한다면 파운드리 업계 2강 체계가 굳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SMIC와 삼성전자가 GF를 인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SMIC는 미국이 중국 기업을 거세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선불리 움직이기 어렵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이미 EUV 공정 양산을 앞둔 등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GF 인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가 GF를 인수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현금성 자산이 수조원대에 불과한 대신, GF를 인수하면 생산 시설 뿐 아니라 기술력으로도 파운드리

업계 상위권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어서다.

대규모 M&A(인수합병)뿐이 아니다. 파운드리 공정이 EUV(극자외선) 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D램 공정도 10나노대에서 주춤해진 상황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 작업도 치열한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마이크론은 최근 D램 1z(10대초반)나노미터 공정 개발에 속도를 붙였다. 양산 목표 시점도 내년 상반기로 정하고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6개월 정도로 좁혔다. 이는 마이크론이 최근 관련 중소규모 기업을 인수하고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M&A 계약 규모가 지난해에도 전년비 17%나 감소한 상황, 삼성전자가 다시 기술수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20조원을 M&A 자금으로 책정해 데다가, 지난달 이스라엘 스타트업 '코어포토닉스'를 인수하면서 신호탄을 쏘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재용 기자 juk@